

“수출 호조에 투자 증가세 지속”

기재부 ‘그린북’ 에서 고용 상황 개선·물가 안정권... “대북관계 개선 분위기 고조엔 긍정적”

정부가 최근 우리경제의 생산, 소비, 투자 등 3박자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부과 선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답장 크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위축은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으로 생산·소비도 큰 폭 반등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지표를 보면 대부분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지난해 12월(-0.5%)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확대로 광공업 생산이 반등(-1.7%→-1.0%)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전문·과학·기술업과 운수·창고업에 힘입어 플러스로 전환(-0.2%→0.8%)했다.

소비 부문은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가전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1.7% 증가했다. 이 역시 지난해 12월(-2.6%)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1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기계 수입이 증가해 6.2% 늘었다. 3개월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 투자 또한 신규주택 완공물량 증가에 따른 주거용 건물 기성액 호조에 힘입어 8.2% 증가했다.

수출 호조도 투자 증가세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2월 수출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 감소에도 반도체 등 주력품목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했다. 수출은 무려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 상황도 비교적 개선된 가운데, 물가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1월 중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3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11달 만이다. 다만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8.7%로 나타났다.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했다. 한파에 따른 채소류 가격 상승이 주요 특징이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개선,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면서도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상협안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철강만 한정해서 보면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전체 수출의 0.7% 정도가 대미 철강 수출이 차지한다. 전체 수출 측면에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통상 협안과 관련하여 서로간의 보복 관세 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 수출과 무역 쪽에서 하방 리스크가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날 발표된 성동준선해양의 법정관리 방침도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 과장은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바로 섰다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쪽 근로자에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마지막 회생절차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지역의 고용 영향은 일부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어제 정부에서도 지역 경제 보완대책을 같이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대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고조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 과장은 “그간 대북 리스크가 항상 우리의 하방 리스크 중 하나였는데, 그런 북핵리스크의 완화를 기대해 본다”며 “일단 4~5월 회담 성과를 봐야하고 지금 단계에서 예단은 어렵지만 긍정적인 팩트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우리는행, ‘조선업 구조조정’ 통영·군산지역 특별 금융지원

우리는행은 9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지역과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지역 산업이 침체된 전북 군산지역의 서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성동준선 해양의 법정관리 방침도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 과장은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바로 섰다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쪽 근로자에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마지막 회생절차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지역의 고용 영향은 일부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어제 정부에서도 지역 경제 보완대책을 같이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대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고조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 과장은 “그간 대북 리스크가 항상 우리의 하방 리스크 중 하나였는데, 그런 북핵리스크의 완화를 기대해 본다”며 “일단 4~5월 회담 성과를 봐야하고 지금 단계에서 예단은 어렵지만 긍정적인 팩트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경영안정 특별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만기일 도래한 여신을 무상환 연장한다. 또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 유예를 연장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3% 우대하며 각종 수수료도 감면한다.

관련 기업 휴직자, 퇴직자 지원 내용은 ▲정기예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참구송금 수수료, 자동회기 이용 수수료 등 수수료 면제 ▲만기도래 여신 무상환 연장 및 최대 1.0% 금리우대 ▲월(리)금 분할상환 대출 상환 유예(최대3개월) 등이다.

지원 신청시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상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뉴스

산업부 “美 철강 관세 부과 국가면제·품목제외 투트랙으로”

“한미 FTA 협상과 창구·시기 겹쳐 영향 배제 어려워”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와 관련해 국가면제 노력과 품목별 제외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9일 “국가 면제는 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논의해 결정하게 되고 품목 제외는 미국의 현지 기업이 청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일체가 미국 현지 기업과 협의할 것”이라며 “국가 면제와 품목 예외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앞으로 232조와 관련 추가 협의를 하게 됐고 한미 FTA 협상도 시기로 겹쳐서 양 협상간 영향이 미칠 것을 배제하긴 어렵다”며 “232조 협상창구가 미 무역대표부(USTR)이고 한미 FTA 협상도 USTR이기 때문에 협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한미 FTA 협상에서 철강관세 피해 노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한미 FTA 협상은 별개의 이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15일 이내에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 기

업이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끝내려고 한다”며 “한미 FTA 협상은 이달 말에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일단 투트랙으로 협상한다. 기본적으로 별개의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과 관련해서는 “관세가 25%가 부과되더라도 (부담 일부)를 현지 바이어들도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은 가능하다”면서도 “대미 철강재 전체 수출액의 88%에 반덤핑 상가관세를 받고 있다. 거기에 25%가 더해지기 때문에 매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기아차 미국 현지 공장은 한국산 철강재를 쓰고 있는데 이번 관세 부과로 높은 원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현지 주주들과 일차리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투자 기업의 공장 가동에 필요한 철강재 제외해달라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중국산 환적비율이 2.4% 밖에 안된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했음에도 미국이 환적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철강재 수입 순위를 보면 한국이 제일 많이 수입을 한다”며 “우리가 봤을 때 환적은 중국산 들어와서 그걸 가공해서 수출하는거로 보는데, 미국은 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

전주매일 www.jjmaeil.com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난 9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서 ‘따뜻한 금융 클리닉 전주 센터’ 개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북은행 제공)

‘따뜻한 금융 클리닉 전주 센터’ 개점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본격 업무 돌입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9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서 ‘따뜻한 금융 클리닉 전주 센터’를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임용택 은행장을 비롯해 김소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양도식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윤여욱 서민금융통합지원 전주센터장, 이종성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센터에서는 포용적 금융 마케팅과 기획, 신상품 설계 및 개발, 채널확대 등 금융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방안들을 지원한다.

또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영업시간을 확대해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

젊은층을 잡아라... 업종 불문 ‘웹툰 마케팅’

기업들이 10~30대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웹툰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웹툰이라는 ‘젊은 콘텐츠’를 통해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의 경우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 기업의 러브콜 세례가 꾸준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최근 인기 웹툰 ‘연애혁명’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작품 속 인물인 한별이를 활용해 ‘영어 내신 1등급 한별이의 영어실력 비결을 담은 연애혁명X영어혁명’ 웹툰을 제작해 윤선생 공식 블로그에서 선보였다.

윤선생 관계자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층을 공략했던 기존 마케팅 활동과 다르게 이번에는 실제 학습자인 10대 청소년 층을 사로잡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웹툰 연애혁명은 고등학생들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연재되고 있을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



으며 네이버 목요일 웹툰 조회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연애혁명 작가 ‘232 씨’는 이번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기업이 원하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구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본편을 연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라고 말했다.

C제일제당은 소시지 ‘맥스봉’ 홍보를 위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맥스봉툰’이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맥스봉툰’은 제품의 주 소비층인 2030세대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맥스봉 캐릭터들이 가진 특징 및 스토리와 함께 전하고 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